

## 현대패션에 표현된 타탄체크에 관한 연구

윤 성 희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박사과정)

최 종 명\*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타탄체크는 대표적인 체크패턴으로써 중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류, 패션 소품, 실내장식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트레이드마크인 감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종래의 이러한 이미지를 뛰어넘는 포스트 모던한 방식으로 타탄체크를 사용하고 있다. 믹스 앤 매치를 통해 과거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조화된 모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타탄체크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타탄체크에 대한 고찰과 함께 현대패션에서 어떻게 응용·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타탄체크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근대 및 현대패션에 나타난 경향에 대해 관련 논문과 패션잡지 및 패션 매체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크패턴은 선명한 날실과 씨실의 조직으로 색과 직조공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패턴이 나타나며, 타탄체크를 비롯하여 얼터네이트 체크, 아가일 체크, 블록 체크, 다이아몬드 체크, 킹엄 체크, 글랜 체크, 건 클럽 체크, 할리퀸 체크, 하운드 투스 체크, 마드라스 체크, 웨퍼드 체크, 윈도우 체크 등이 있다. 둘째, 타탄체크는 중세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에서 유래하여 계승, 발전하였고, 남자의 전통복식인 플래드와 킬트에 사용되었다. 목적, 용도, 신분, 사람 등에 따라 타탄체크의 형태와 명칭이 분류되었다. 셋째, 타탄체크는 19세기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복식이 변화함에 따라ミリ터리 룩과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되었다. 1970년대의 청바지의 유행과 19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충주의적 조형성에 따라 복고적 스타일로 나타났다. 넷째, 2000년대 중반 컬렉션에 나타난 타탄체크는 다른 체크패턴과 프린트 문양과의 혼성적 표현에 의해 경쾌하고 모던하게 표현되었다. 다섯째, 타탄체크를 상징으로 하는 브랜드인 버버리는 전통적인 타탄체크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젊고 모던하게 재구성하였다. 여섯째, 타탄체크는 현대패션에서 풍부한 색감과 그래픽, 구성과 공간감으로 복식의 내적 조형성을 표현하였으며 타탄체크의 감성 이미지는 현대패션에서 응용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타탄체크는 패션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용해왔던 것 이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패턴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 패션소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